

경기도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에 대한 의식조사 - 공무원과 도민의 설문조사 비교를 중심으로 -

성 현 찬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

A Study on the Perception Survey for Role of Environmental NGOs in Kyonggi-Do - Comparison of Questionnaire to Public Officials and Residents as a Key Subject -

Sung, Hyun-Chan

Senior Researcher, Kyonggi Research Institute

Abstract

The opinionnaire was given to two groups; residents and public officials working at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section. Based on the result of questionnaire, perceptual differences between these groups toward environmental NGO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The results were classified into following four items; Firstly, numbers of residents who recognize the existences of environmental NGOs in Kyonggi-Do were lower than those who didn't. Secondly, in both groups, more than 80% of respondents acknowledged that residents should be involved in decisions and developments of environmental projects. Thirdly, respondents belonging to both groups overwhelmingly selected the item "being improved" as the answer for the question asking whether NGOs' environmental activities contribute to improve of environmental conditions. This indicated that public officials also acknowledged the positive role of NGOs in environmental issues. Lastly, the answer of "intensive upbringing is necessary" was ranked as the first place for the question asking "necessity of raising environmental NGOs". However, it was hard to tell which opinion was superior in the matter of financial support necessity for NGOs judging from the answers by respondents of public officials

Key words : NGOs, Perception Survey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민간환경단체는 시민들이 자발적·자율적·자치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기구를 말하며, 공공부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공공부문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과 입장을 전달하고, 각종 정책 입안 및 집행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여 사업의 효과를 시민의 입장에서 극대화하는 쪽으로 유도해 내는 역할을 수행한다⁴⁾⁵⁾. 민간환경단체가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면, 민간환경단체가 각종 환경 행정계획 입안·집행·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참여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⁶⁾.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민간환경단체와 행정기관과의 관계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측과 지역의 환경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 보장을 주장하며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정하려는 측으로 이분화 되고 있다⁶⁾. 특히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고양되면서 지역의 환경보전을 주장하며 주민의 환경의식을 고양시키고 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시시비비를 들추어내는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이 행정기관에게는 도리어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악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민간환경단체를 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이들의 활동에 대한 지방 환경정책에서의 역할 및 참여도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이들 단체들을 적극 수용한다면 지역의 환경보전을 더욱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인지 등에 관한 시민이나 행정기관의 의식에 대한 기초연구나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민간환경단체에 관한 약간

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단체의 현황조사를 목적으로 한 연구⁷⁾, 단체의 역할 정립에 대한 연구³⁾⁴⁾¹⁾²⁾⁹⁾,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연구⁵⁾, 구체적인 환경사안에 대한 지방정부와 민간환경단체 간의 갈등해소에 관한 연구⁷⁾ 등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주로 전문가의 전문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였다고 할 수 있으며,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의 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본 연구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기도내 민간환경단체와 그들의 활동에 대한 도민과 공무원의 의식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식간격을 좁혀 앞으로의 민간환경단체의 바람직한 역할과 참여방안을 정립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환경의 보전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경기도민과 경기도나 시·군의 환경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민간환경단체를 보는 시각 및 육성방안 등에 대한 도민과 공무원들의 의식정도와 두 집단간의 시각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도민과 행정기관, 민간환경단체 3자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뿐 아니라,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환경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경기도내 민간환경단체 현황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민간환경단체는 25개 시·군에 91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⁶⁾. 이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부천시가 9개 단체로서 가장 많으며, 안산시가 8개 단체, 수원시, 안양시에 각각 7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다음으로 광명시, 의정부시에 각각 5개 단체, 성남시, 고양시, 군포시, 하남시에 각각 4개 단체, 과천시, 구리

표 1. 경기도내 조직형태별 민간환경단체의 현황

단 체 구 분	단 체 명	단체수
전국조직의 지부	YMCA	12
	YWCA	10
	환경운동연합	10
	한국환경운동연합회	1
	그린훼밀리 운동연합	6
	(사)환경보호 국민운동	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
	청룡환경연합회	2
	그린크로스, 홍사단, 한국환경경영연합회, 사랑의 녹색운동, 녹색실천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각 1개소 (7개소)
지방단독조직	과천을 사랑하는 시민연구 모임, 과천 녹색가게, 협성생산공동체, 물살림, 군포시민의 모임, 군포환경자치시민회, 지구촌환경보존회, 환경을 살리는 부천시 시민의 모임(21세가 환경연구소), 여성환경보존협회,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성남시민모임, 녹색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녹색환경연구소, 환경개선운동실천운동협의회, 사진을 찍는 사람들, 해양시민대학, 안산환경정보 자료실,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경기녹색환경실천회(안양지역환경단체연합회), 경기도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양평군민포럼, 경기연합대책위원회(한강지킴이운동본부), 팔당상수원유기농법 운동본부, 오산환경시민의 모임, 북한천살리기 시민모임, 지방환경연구회, 대한환경감시단, 경기동부환경운동협의회, 광주환경대책위원회	각 1개소 (29개소)
계		91

시, 시흥시, 안성시, 이천시, 평택시, 양평군에 각각 3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오산시, 파주시, 남양주시, 용인시, 양주군에 각각 2개 단체, 김포시, 여주군, 광주군에 각각 1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조직의 형태별로 살펴보면, 2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전국조직의 지부 형태로서는 환경운동연합, YMCA, YWCA, 한국환경운동연합회, 그린훼밀리 운동연합, (사)환경보호 국민운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그린크로스, 청룡환경연합회, 홍사단, 한국환경경영연합회, 사랑의 녹색운동, 녹색실천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등 총 15개 단체가 62개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단독조직의 형태로서는 '과천을 사랑하는 시민연구 모임(일명 과사모)' 등 총 29개 단체가 29개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설문조사의 개요

1) 경기도민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1999년 10월 한달간 실시되었으며, 층화이단표본추출법으로 먼저 경기도내 민간환경단체가 위치한 20개 시·군(총 25개 시·군중 민간환경단체의 파악이 늦게 이루어진 5개시·군 제외)을 대상으로, 도시의 경우 5개 동을, 군의 경우 1개 읍 및 2개 면을 무작위로 층화추출하고, 다음으로 추출된 동(1동당 9부) 및 읍·면(1읍·면당 15부)에서 각 45명의 주민(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18세 이상의 남녀 개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원이 직접 해당지역 주민을 방문하여 응답자 면접후 회수하는 방문면접법을 실시하였다.

각 시·군별 인구비례에 의한 추출이 아니고

동일한 표본수를 추출한 것은, 특정이슈에 대한 주민의 의식은 '인구비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의식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총 표본수는 900대로 95% 신뢰수준에서 표본 오차를 백분비로 최대 ±3.1%정도로 묶어 두는 표본수로서, 일정한 정밀도가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응답자의 특성으로는 남녀 비율은 반반정도이며, 연령구조는 항아리 형태를 이루어 적절한 형평을 보이고, 직업은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학력은 주로 고졸이상으로서 해당도시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소득수준은 연간 3,000만원 이하로서 일반 서민을 대표하고 있었다.

2) 공무원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1999년 10월 한달간 실시되었으며, 표본의 추출은 민간환경단체와 관련하여 직접적

인 업무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로서 환경관련 부서와 간접적인 업무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로서 개발관련 부서(건설과 및 도시과)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경기도 본청에서는 환경국내 4개 과에서 각 과별로 1명씩, 건설도시정책국내 6개 과에서 각 과별로 1명씩 총 10명을 표본 추출하였다. 31개 시·군에 대해서는 각 시·군의 환경위생과(또는 환경보호과)에서 각 2명씩, 건설과에서 1명, 도시과에서 1명씩 총 4명(개발부서와 환경부서를 동수(同數)로 함)을 표본 추출하고, 설문지를 공문으로 발송하고, 우편 및 팩스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도 본청 10부, 31개 시·군 124부, 총 134부의 설문지가 발송되었으며, 총 82부가 회수되어 59.7%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응답자의 특성으로는, 남녀비율은 8 : 2 정도이며, 연령구조는 30대와 40대가 대부분으로 어느 정도 행정업무에 능숙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학

표 2. 경기도민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구 분		표본수	구성비(%)	구 분		표본수	구성비(%)
성별	남성	456	50.7	학력	국졸이하	9	1.0
	여성	444	49.3		중졸	71	7.9
	무응답	0	0		고졸	458	50.9
연령	10대	38	4.2		대졸	342	38.0
	20대	342	38.0		대학원졸	16	1.8
	30대	257	28.6		무응답	4	0.4
	40대	179	19.9		소득 수준 (연평균)	1,000만원 미만	331
	50대	66	7.3	1,000-2,000만원		295	32.8
	60대이상	17	1.9	2,000-3,000만원		160	17.8
	무응답	1	0.1	3,000-4,000만원		45	5.0
직업	학생	167	18.6	4,000-5,000만원		23	2.6
	주부	162	18.0	5,000만원 이상	12	1.3	
	회사원/공무원	189	21.0	무응답	34	3.8	
	농어업	17	1.9	전 체	900	100	
	상, 공, 서비스, 자영업	276	30.7				
	기능, 생산근로자	29	3.2				
	기타	57	6.3				
	무응답	3	0.3				

표 3. 공무원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구분		표본수	구성비(%)	구분		표본수	구성비(%)
성별	남성	64	78.0	학력	국졸이하	0	0.0
	여성	18	22.0		중졸	0	0.0
연령	10대	0	0.0		고졸	15	18.3
	20대	11	13.4		대졸	60	73.2
	30대	49	59.8		대학원졸	7	8.5
	40대	22	26.8	업무구분	개발부서	32	39.0
	50대	0	0.0		환경부서	50	61.0
60대 이상	0	0.0	전체	82	100.0		

력은 대부분이 대졸이상으로서 해당도시의 행정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업무구분에 있어서는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환경부서와 개발부서와의 비율을 동수(同數)로 하여 설문지를 송부하였으나, 회수된 설문지는 환경부서와 개발부서와의 비율이 6 : 4 정도를 이루고 있었다.

2. 설문지의 내용구성 및 분석방법

설문지는 민간환경단체를 보는 시각 및 참여정도에 관한 문항, 향후 역할과 육성에 관한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석방법은 PC-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인지와 견해

1) 민간환경단체의 존재에 대한 인식

경기도민들은 자기가 사는 시·군의 민간환경단체 존재유무에 대해 “있다”, “있는 것 같다”가 전체의 42.5%로서 절반을 넘지 않았다(표 4). 즉, 경기도민 중에는 민간환경단체가 존재하는 지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민간환경단체에서는 단체의 활동 강화와 함께

단체의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민간환경단체 프로그램 참여 여부

경기도민들 중 민간환경단체에서 실시하는 생태기행, 갯벌탐사, 자연답사, 식물기행, 환경학교 등 각종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2%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민 10명 중 2명 꼴인 것으로 분석된다(표 5). 이 결과는 민간환경단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주민(42.5%)중 절반이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으

표 4. 민간환경단체 존재 인식

항목	빈도(명)	비율(%)
있다	175	19.4
있는 것 같다	208	23.1
잘 모름	399	44.3
없는 것 같다	94	10.4
없다	21	2.3
무응답	3	0.3
계	900	100.0

표 5. 민간환경단체 프로그램 참여 여부

항목	빈도(명)	비율(%)
가족전체참여	30	3.3
자녀만 참여	125	13.9
부모만 참여	27	3.0
참여한 적 없음	712	79.1
무응답	6	0.7
계	900	100.0

로 분석된 것이다. 또한, 이 결과에서 자녀만 참여한 경우가 13.9%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민간환경단체의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방향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견해

경기도민들이 민간환경단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항상 행정기관의 환경정책이나 개발사업에 반대만 하는 단체이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는 2.7%에 불과하였으며, “환경정책이나 개발이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노력하는 단체이다”라는 긍정적인 견해가 37%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어떤 때에는 심한 반대단체 같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잘하는 단체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라는 판단을 유보하는 견해도 33%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확대 해석해 본다면 경기도민들의 70% 정도가 민간환경단체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은 개발부서와 환경부서 차이없이 “항상 행정기관의 환경정책이나 개발사업에 반대만 하는 단체이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는 3.7%에 불과하였으며, “어떤 때에는 심한 반대단체 같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잘하는 단체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라는 판단을 유보하는 견해

가 54.9%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정책이나 개발이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노력하는 단체이다”라는 긍정적인 견해가 28%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확대 해석해 본다면, 판단을 유보하고 있기는 하나, 공무원들의 83% 정도가 민간환경단체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민간환경단체의 정책참여정도와 방안

1) 환경관련 정책 및 주요 개발사업에 주민참여의 필요성

경기도민들은 주요 환경정책이나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시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반드시 참여”하거나 “필요에 따라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88.5%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무원이나 도의원, 시·군의원의 대신 참여”,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도민의 대부분은 주요 환경정책이나 개발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무원들도 개발부서와 환경부서 차이없이 “반드시 참여”하거나 “필요에 따라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81.7%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무원이나 도의원, 시·군의원의 대신 참여”,

표 6.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견해

항 목	경기도민		공무원 전체		개발부서		환경부서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사업 등에 반대만 함	24	2.7	3	3.7	1	3.31	2	4.0
주민의 편에서 노력함	333	37.0	23	28.0	12	37.5	11	22.0
상황에 따라 사업에 반대와 지지를 함	297	33.0	45	54.9	16	50.0	29	58.0
잘 모름	231	25.7	3	3.7	1	3.1	2	4.0
기타	12	1.3	6	7.3	2	6.3	4	8.0
무응답	3	0.3	2	2.4	0	0.0	2	4.0
계	900	100.0	82	100.0	32	100.0	50	100.0

표 7. 환경관련 정책 및 주요 개발사업에 주민참여의 필요성

항 목	경기도민		공무원 전체		개발부서		환경부서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반드시 참여	236	26.2	22	26.8	7	21.9	15	30.0
필요에 따라 참여	561	62.3	45	54.9	17	53.1	28	56.0
공무원·의원들이 대신 참여	30	3.3	6	7.3	5	15.6	1	2.0
참여 불필요	10	1.1	1	1.2	0	0.0	1	2.0
잘 모름	61	6.8	7	8.5	2	6.3	5	10.0
무응답	2	0.2	1	1.2	1	3.1	0	0.0
계	900	100.0	82	100.0	32	100.0	50	100.0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은 역시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무원들의 대부분은 주요 환경정책이나 개발사업에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주민참여의 방법

경기도민들은 주민참여방법에 대하여 “민간환경단체를 지원하여 민간환경단체가 주민을 대신하여 참여하도록 한다”라는 의견이 28.8%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순위로는 “행정기관에서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기에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참여하도록 한다”는 의견이 16.5%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직접적인 참여(본인이 직접 의견제시, 공청회·설명회에 참여, 주민들의 자치모

임)는 38.7%, 간접적인 참여(민간환경단체, 지방의회, 언론 등을 통한 대리 참여)가 47.7%로서, 아직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보다는 한 단계를 거쳐 간접적인 방법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무원들은 개발부서와 환경부서 차이없이 “행정기관에서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기에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참여하도록 한다”라는 의견이 45.1%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순위로는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의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전달한다”라는 의견이 16.5%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본인이 시청, 군청 등 행정관서에 직접 의견을 낸다”, “민간환경단체를 지원하여 민간환경단체가 주민을 대신하여 참여하도록 한다”, “주민들이 자체적으

표 8. 주민참여의 방법

항 목	경기도민		공무원 전체		개발부서		환경부서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본인이 직접 의견제시	105	11.7	11	13.4	2	6.3	9	18.0
지방의회에 의견제시	102	11.3	15	18.3	6	18.8	9	18.0
민간환경단체가 대신참여	259	28.8	9	11.0	1	3.1	8	16.0
주민들의 자치모임	96	10.7	4	4.9	2	6.3	2	4.0
공청회·설명회 참여	147	16.3	37	45.1	16	50.0	21	42.0
언론에 의견제시	68	7.6	0	0.0	0	0.0	0	0.0
그대로 두고 봄	21	2.3	0	0.0	0	0.0	0	0.0
잘 모름	65	7.2	0	0.0	0	0.0	0	0.0
무응답	37	4.1	6	7.3	5	3.1	1	2.0
계	900	100.0	82	100.0	32	100.0	50	100.0

로 모임을 조직하고 모임을 통해 참여한다”가 13.4%, 11%,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참여방법으로서 관 주도의 참여(공청회·설명회에 참여, 지방의회로 전달, 61.6%)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의견제시, 민간환경단체가 대리 참여, 주민모임, 언론 등을 통한 대리 참여 등의 적극적인 참여는 별로 고려하고 있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개선 여부

경기도민은 민간환경단체가 활동함으로 해서 국가나 지방의 환경정책이나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측면에 대한 고려가 예전보다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는지,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훨씬 나아진다”, “약간 나아진다”가 70%로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약간 나빠지거나 훨씬 나빠진다”라는 의견은 17%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는 경기도민들이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들의 활동이 환경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무원들도 개발부서와 환경부서 차이없이 “훨씬 나아진다”, “약간 나아진다”가 80.4%로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약간 나빠지거나 훨씬 나빠진다”라는 의견은 2.4%에 불과하

였다. 그러나, 앞 문항의 주민참여 방법에서는 민간환경단체의 참여에 대해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의 결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본인의 부서 업무에 있어서는 민간환경단체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있는, 이중적인 결과로 분석되어 질 수 있다.

4) 현재 민간환경단체의 참여 정도에 대한 인식

현재 도나 시·군의 환경정책 수립 및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주요 개발사업의 수립 및 추진시 민간환경단체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기도민들과 공무원들의 인식은 모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외부에서 반대운동을 하거나 의견제시 등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가 36.7%,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한 것에 대해 가끔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26.8%, 32.9%,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13.4%,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볼 때, 경기도민들과 공무원들은 지방 환경정책의 수립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 민간환경단체가 아직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관서와 민간환경단체간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9.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개선 여부

항 목	경기도민		공무원 전체		개발부서		환경부서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훨씬 나아짐	208	23.1	23	28.0	11	34.4	12	24.0
약간 나아짐	422	46.9	43	52.4	16	50.0	27	54.0
그저 그렇다	165	18.3	12	14.6	3	9.4	9	18.0
약간 나빠짐	7	0.8	1	1.2	0	0.0	1	2.0
훨씬 나빠짐	8	0.9	1	1.2	1	3.1	0	0.0
잘 모름	87	9.7	2	2.4	1	3.1	1	2.0
무응답	3	0.3	0	0.0	0	0.0	0	0.0
계	900	100	82	100.0	32	100.0	50	100.0

표 10. 현재 민간환경단체의 참여 정도에 대한 인식

항 목	경기도민		공무원 전체		개발부서		환경부서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대부분 참여	121	13.4	23	28.0	8	25.0	15	30.0
가끔 참여	241	26.8	27	32.9	9	28.1	18	36.0
의견제시 등 소극적 참여	330	36.7	32	39.0	15	46.9	17	34.0
잘 모름	206	22.9	0	0.0	0	0.0	0	0.0
무응답	2	0.2	0	0.0	0	0.0	0	0.0
계	900	100	82	100.0	32	100.0	50	100.0

공무원중 개발부서와 환경부서의 의견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큰 차이는 없으나 환경부서에서는 “중요한 것에 대해 가끔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가 약간 높게 나타나 개발부서 보다 민간환경단체의 참여율을 더 높게 보고 있었다.

5) 민간환경단체의 향후 참여방안

향후 도나 시·군에서 환경정책의 수립시,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시, 각종 정책·계획 관련 위원회에 참여 등 3가지 단계에서 민간환경단체의 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의 경우 3가지 방법 모두에서 평균 80.8%의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물론 앞으로의 환경정책 및 개발계획의 수립시 그 과정에서부터 민간환경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경기도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며, 행정관서와 민간환경단체가 보다 밀접하게 협력하여 환경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할 것이다.

관련 행정실무를 다루는 공무원들은 개발부서와 환경부서 차이없이 도민들의 의견과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환경정책의 수립시 참여”와 “각종 정책·계획 관련 위원회에 참여”에 있어서는 53.7%, 62.2%로서 법적, 제도적으로 민간환경단체의 참여를 찬성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시 참여”에 있어서는 찬성과 반대 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볼 때, 주민이나 민간환경단체에게 민감한 사안인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시”에는 관련 실무자로서의 공무원들이 민간환경단체의 참여를 크게 반기지 않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3. 민간환경단체의 육성방안

1)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자료 제공 여부

민간환경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또는 지방행정에 대한 정보공개 차원에서 도나 시·군

표 11. 민간환경단체의 향후 참여방안에 대한 의견

항 목	정책수립시 민간환경단체의 참여 보장				개발계획 수립시 민간환경단체의 참여 보장				각 정책, 계획 위원회에 민간환경단체의 참여 보장			
	경기도민		공무원 전체		경기도민		공무원 전체		경기도민		공무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747	83.0	44	53.7	716	79.6	38	46.3	720	80.0	51	62.2
아니오	145	16.1	35	42.7	166	18.4	40	48.8	163	18.1	28	34.1
무응답	8	0.9	3	3.7	18	2.0	4	4.9	17	1.9	3	3.7
계	900	100.0	82	100.0	900	100.0	82	100.0	900	100.0	82	100.0

의 각종 개발 및 환경관련 자료(도시계획보고서, 각종 용역보고서 등)나 정보를 민간환경단체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경기도민의 72%가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16.4% 만이 “정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거나, 전혀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들은 민간환경단체의 적극적인 지방 환경정책에의 참여를 위하여 각종 환경자료나 정보를 민간환경단체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무원들은 개발부서와 환경부서 차이없이 “일부분의 자료나 정보만 제공하되 정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가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부자료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가 39%로 나타났다. “모든 자료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12.2%에 불과하였다. 즉, 공무원들은 각종 자료나 정보의 공개에 대해 완전한 공개보다는 필요한 정도만을 제공하는 수준을 바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민간환경단체의 향후 육성 여부

향후 민간환경단체의 육성 여부에 대해서는 80.6%의 경기도민들이 앞으로 “더욱 육성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공무원들도 개발부서와 환경부서 차이없이 62.2%의 공무원들이 앞으로 “더욱 육성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어 민간환경단체의 육성에는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수준대로 둔다”나 “육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29.2%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자료 제공 여부

항 목	경기도민		공무원 전체		개발부서		환경부서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모든 자료의 정기적 제공	412	45.8	10	12.2	5	15.6	5	10.0
일부 자료의 정기적 제공	236	26.2	32	39.0	11	34.4	21	42.0
일부만 제공하되 정기적일 필요는 없음	144	16.0	33	40.2	13	40.6	20	40.0
제공할 필요 없음	4	0.4	0	0.0	0	0.0	0	0.0
잘 모름	96	10.7	0	0.0	0	0.0	0	0.0
기타	5	0.6	6	7.3	2	6.3	4	8.0
무응답	3	0.3	1	1.2	1	3.1	0	0.0
계	900	100.0	82	100.0	32	100.0	50	100.0

표 13. 민간환경단체의 향후 육성 여부

항 목	경기도민		공무원 전체		개발부서		환경부서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더욱 육성 필요	725	80.6	51	62.2	20	62.5	31	62.0
현 수준으로 만족	75	8.3	17	20.7	5	15.6	12	24.0
육성하지 않아도 됨	14	1.6	7	8.5	3	9.4	4	8.0
잘 모름	77	8.6	1	1.2	0	0.0	1	2.0
기타	6	0.7	5	6.1	3	9.4	2	4.0
무응답	3	0.3	1	1.2	1	3.1	0	0.0
계	900	100.0	82	100.0	32	100.0	50	100.0

3) 향후 민간환경단체에의 예산지원 여부

향후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할 경우, 정부 혹은 시·군에서 민간환경단체에 대해 예산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경기도민은 74%가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으며, 반면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9%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실제 예산지원을 담당하게 될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는 46.3%가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으나, 반면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39%나 되었다. 개발부서와 환경부서의 의견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두 부서간의 의견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개발부서에서는 50% : 37.5%의 비율로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우세하였으며, 환경부서에서는 52% : 32%의 비율로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가 우세하였다. 앞 문항과 비교하여 분석해 본다면, 개발부서에서는 민간환경단체를 더욱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환경부서에서는 민간환경단체를 더욱 육성하며 아울러 예산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4)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도민과 공무원의 요구 사항

민간환경단체에 대해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자유롭게 적어 달라는 자유응답 설문결과, 가장 많은 요구사항은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행정정책에 대한 제어능력과 실천력, 추진력 있는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19.1%)”한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 순위는 “민간환경단체가 외관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능을 가져야 (15%)”한다는 것이었다.

즉, 밖으로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안으로는 내실을 기하면서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여 달라라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경우는, 총 응답자수 82명 중 40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에서 가장 많은 요구사항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바라는 것 보다 순수하고, 청렴, 투명한 단체로 유지하기를 요망한다(32.5%)”는 것이었고, 그 다음 순위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양하고, 합당한 대안제시에 노력, 공정한 활동을 기대한다(30%)”는 것이었다. 즉, 순수한 민간단체로 유지하면서 공정한 대안제시와 활동을 해 달라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7.5%)”이 필요하며, “환경단체의 교육으로 의식향상 도모(전문성 확립)(7.5%)”해 달라라는 것이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경기도민과 경기도나 시·군의 환경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민간환경단체를 보는 시각 및 육성방안 등에 대한 도민과 공무원들의 인식정도와 두 집단간의 시각차이

표 14. 향후 민간환경단체에의 예산지원 여부

항 목	경기도민		공무원 전체		개발부서		환경부서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예산지원 필요	666	74.0	38	46.3	12	37.5	26	52.0
예산지원 불필요	81	9.0	32	39.0	16	50.0	16	32.0
잘 모름	144	16.0	8	9.8	4	12.5	4	8.0
기타	8	0.9	4	4.9	0	0.0	4	8.0
무응답	1	0.1	0	0.0	0	0.0	0	0.0
계	900	100.0	82	100.0	32	100.0	50	100.0

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도민과 행정기관, 민간환경단체 3자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초 자료뿐 아니라,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환경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도민과 공무원 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주민참여방법', '민간환경단체의 향후 참여방안',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정기적 자료 제공'의 항목에서는 도민과 공무원간 시각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민들의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존재 여부 인식도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으며, 프로그램의 참여여부는 도민 10명중 2명꼴의 수준이었다.

둘째,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견해로서는 도민의 경우 긍정적인 견해와 판단유보(70%), 공무원들의 경우 판단유보와 긍정적인 견해(82.9%)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견해는 도민, 공무원 모두 2-3%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민간환경단체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동반자적 협조체제 구축이 과제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관련 정책 및 주요 개발사업에 주민참여의 필요성에서는 도민과 공무원 모두 80%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로 나타나 참여의사도 높으며, 공무원의 수용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참여방법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경우 민간환경단체가 대신 참여하는 것을 1위로 꼽았으나, 공무원들의 경우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참여를 1위로 꼽았다. 즉, 공무원은 민간환경단체의 참여보다는 관주도의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의 전향적인 의식개혁과 단계적인 참여방법의 개선이 타협점이 될 것이다.

넷째, 민간환경단체활동으로 인한 환경개선여부에 대해서는 도민과 공무원 모두 "나아진다"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이 환경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공무원도 잘 인식

하고 있었다. 따라서, 민간환경단체의 참여가 관련 업무과중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불식과 단계적인 참여방법의 개선이 타협점이 될 것이다.

다섯째, 현재의 민간환경단체 참여정도 인식에 대해서는 도민과 공무원 모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에서의 운동 및 의견제시"라는 소극적인 참여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 결과는 도민, 공무원 모두 현재 민간환경단체가 환경정책 및 계획수립시 제대로 참여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협조체제 구축에 대한 공동노력과 제도권내 참여프로세스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향후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도민은 정책, 개발계획, 위원회 모두에 참여를 바라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개발계획의 수립시는 참여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환경행정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3단계 모두에 민간환경단체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정기적 자료제공에 대해서는 도민은 "모든 자료의 정기적 제공"이 1위, 반대로 공무원은 "일부만 제공하되 정기적 제공은 불가"가 1위로 나타나, 공무원의 경우 관련자료 제공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바람직한 환경정책 수립과 동반자적 관계정립을 위한 초석으로서 정보제공이 우선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일곱째, 민간환경단체의 향후 육성 여부에 대해서는 도민과 공무원 모두 "더욱 육성 필요"하다는 의견이 1위(80.6%, 62.2%)로 나타났으나, 공무원의 경우 "현수준으로 만족한다"와 "육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29.2%였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육성시의 예산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도민의 경우 역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74%로 나타났으나, 공무원의 경우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46.3%, 불필요하다는 39%로 나타나 팽팽한 의견이었다. 특히 개발부서공무원은 예산지원 불필요를 1순위로 꼽고 있었다. 앞으로 민간환경단체의 바람직한 육성방안을 수립하되 예산지

원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의식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민간환경단체에 대해 도민들은 “적극적인 활동”, “내실을 기하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공무원들은 “순수하고, 청렴, 투명한 단체 유지”, “대안제시 및 공정한 활동”을 원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들과 공무원들의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시각과 민간환경단체들의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민간환경단체를 보는 도민과 공무원들의 시각차이도 비교하여 보았다.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감시와 규제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며, 시민사회와 민간환경단체들의 활동과 노력이 함께 해야만 보다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의 공동번영체로서 행정기관, 주민, 민간환경단체 3자 모두가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해나가야 할 것이며, 본 연구결과가 3자간의 협조관계를 공고히 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고운, 1998, 지역간 환경갈등에서 환경운동단체의 역할,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김동영, 1999,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인 공동체의 역할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학실, 1996, 지방의 환경정책에 있어서 공익단체의 역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박재형, 1996, 국제환경문제와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사)시민환경연구소, 1997, 환경자치체 건설을 위한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방안
6. 성현찬, 1999, 경기도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보고서
7. 수도권 주민자치 연구모임, 1998, 수도권 지역운동단체 현황조사
8. 이수장, 1996, 기피시설입지의 갈등해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제주발전연구원, 1998, 제주지역 시민단체의 현황과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 제주발전연구원보고서